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김한성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hskim@kiep.go.kr, Tel: 3460-1087)

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yjjang@kiep.go.kr, Tel: 3460-1065)

- 1.
- 2.
- 3.
- 4.



- ▶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칠레 FTA는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됨.
-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 최초의 FTA로 지난 6년간 양자간 교역이나 활용 측면에서 FTA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 ▶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은 주로 양자간 교역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FTA에 따른 교역 증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미진한 상태임.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칠레 FTA가 양자간 상품교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함.
- 양자간 교역품목의 다변화 및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과 같은 수출의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과 더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출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 먼저 양자간 교역품목수에서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의 대칠레 수출 및 수입품목은 꾸준히 증가함.
- 특히 한·칠레 양자간 교역 확대가 주로 교역품목수가 크게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교역품목의 증가는 한·칠레 FTA의 증진효과(Pro-

motion Effect)로 볼 수 있음.

- ▶ 또한 칠레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는 비교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FTA 발효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로 돌아섬.
- 특히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수출을 시작한 신규수출기업의 증가와 이들이 대칠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남.
- 이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한·칠레 FTA는 국내 수출기업의 내연적 성장(Intensive Margin)보다 외연적 성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 마지막으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임.
-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중소기업들의 신규 진출과 수출 증가는 대기업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칠레 FTA가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1.

■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한·칠레 FTA는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됨.

-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FTA 활용률에 있어서도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90% 이상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증가율과 활용률에서 여타 FTA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가장 모범적인 FTA 성공사례로 평가됨.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주로 양자간 교역이 어떠한 품목을 중심으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짐.

-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인하·철폐되면서 양자간 교역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양자간 교역증가는 단순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철폐 효과로 인식됨.

■ 그러나 관세인하 및 철폐로 나타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FTA 체결에 따른 증진효과(Promotion Effect)가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칠레와 FTA가 체결되면서 기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개인이나 기업들의 칠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는 기업이 적극적인 대칠레 교역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양자간 교역 증가를 불러오게 됨.

- 즉 단순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에 따른 교역 증가도 있지만, 이보다는 FTA 체결 자체가 불러오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양자간 교역 증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칠레의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이 6% 혹은 무관세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를 통해 관세 철폐만으로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5년 만에 3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러한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FTA의 증진효과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난 6년간의 한·칠레 FTA 상품부문 교역에 대해 새로운 방향에서 평가를 시도함.

■ 먼저 FTA 체결에 따른 증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칠레 양자간 교역품목수 변화와 신규 수출기업의 변화를 살펴봄.

- 관세인하 혹은 철폐에 따른 FTA 효과는 기존 수출품목 또는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교역 증가로 살펴볼 수 있음.

- 그러나 양국간 새로운 교역품목 또는 신규 수출기업의 증가는 관세인하 및 철폐 외에도, 한·칠레 FTA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칠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품목수 및 신규 수출기업 변화는 한·칠레 FTA의 증진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됨.

■ 또한 한국의 대칠레 수출 증가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출의 내연적(intensive) 성장과 외연적(extensive) 성장으로 나누어 살펴봄.

-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란 FTA 체결로 인해 기존에 칠레에 수출을 하고 있던 품목 또는 기업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반면 FTA에 따른 수출의 외연적 성장은 기존에 칠레 시장으로 진출하지 못했던 품목 또는 기업이 관세인하 및 철폐를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어 새롭게 칠레로 수출을 개시함으로써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칠레 수출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교역변화를 살펴봄.

- 무역자유화에 따른 신규 수출기업의 증가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증가를 비교하면서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함.

2.

가. 한·칠레 상품 교역

■ 양자간 FTA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부터 양자간 교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함.

- 한·칠레 양자간 교역은 2001년 12억 7,000만 달러에서 2009년 53억 3,000만 달러로 320.3% 증가함.
- 연도별 교역은 2001년 이후 2007년에 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액을 기록함.
- 한·칠레 FTA 발효 초기인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양자간 교역은 176.3%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율은 101.8%를 기록함.
- 2008~09년의 교역 감소는 세계경기 침체와 일·칠레 FTA 및 중·칠레 FTA 발효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 2004~09년 기간 동안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4.7%와 60.5% 증가하였으며, 특히 발효 3년 기간인 2004~07년에 수출과 수입은 각각 339.8%와 116.4%가 늘어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임.

표 1. 한·칠레 상품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입액	수출액	교역액
2001	696.1	572.6	1,268.7
2002	753.9	454.0	1,207.9
2003	1,057.7	517.2	1,574.9
2004	1,933.5	708.3	2,641.8
2005	2,279.2	1,151.0	3,430.2
2006	3,812.9	1,566.1	5,379.1
2007	4,183.8	3,115.1	7,298.9
2008	4,127.4	3,031.8	7,159.2
2009	3,103.3	2,229.1	5,332.4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나. 교역품목의 증가

■ 2001~09년 동안 한·칠레 교역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HS 10단위에서 양자간 교역품목수를 살펴보면 수입의 경우 2001년 총 187개 품목에서 2009년 437개 품목으로 133.7% 증가하였으며, 수출품목수도 같은 기간 4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최초 발효 연도인 200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과 수출에서 교역품목수는 각각 112.1%와 30.9% 증가함.

- 2001년 한국 HS 10단위 총품목수에서 칠레로 수출되는 품목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 이었으나, 2009년에는 12.9%로 약 3.3%포인트 증가함.
- 특히 양자간 수출입이 감소한 2008년과 2009년에도 교역 품목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한·칠레 교역의 품목 다변화가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한·칠레 교역품목수(2001~09년)

(단위: 개)		
연도	수입품목수	수출품목수
2001	187	1,079
2002	211	1,098
2003	222	1,118
2004	206	1,173
2005	262	1,245
2006	279	1,226
2007	280	1,307
2008	344	1,495
2009	437	1,536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대칠레 수출에서 산업별로는 고무·화학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정밀기계의 수출품목수가 크게 증가함.

- 고무·화학 제품의 수출품목수는 2001년 153개 품목에서 2009년에는 237개로 크게 증가하였고, 금속제품의 경우는 124개 품목에서 183개 품목으로, 일반기계와 정밀기계 수출 품목수는 2001년에 각각 175개와 57개 품목에서 2009년에 309개 124개 품목으로 늘어남.
- 또한 증가율에서는 가공광물과 가공1차산품의 수출품목 증가가 눈에 띄는데, 가공광물의 경우는 2001년 13개에서 2009년에는 26개 품목으로 2배 증가하였고, 가공1차산품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16개 품목에서 45개 품목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반면에 가죽제품이나 섬유·의류제품의 수출품목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운송기기, 1차산품, 종이·목재 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표 3. 연도별·산업별 한국의 대칠레 수출품목수(2001~09년)

산업	(단위: 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차산품		2	2	1	3	4	2	2	2
가공1차산품	16	24	24	22	33	21	24	45	45
가공광물	13	12	16	20	18	19	24	26	29
가죽제품	13	9	10	6	4	6	4	10	10
고무/화학	153	159	161	174	188	177	199	203	237
금속제품	124	126	122	107	114	118	144	183	183
기타운송기	3	3	1	5	2	3	3	2	3
기타제조업	79	80	79	72	65	60	65	76	79
비금속광물	21	17	21	25	28	24	28	28	29
섬유/의류	185	170	169	183	173	172	155	167	169
운송기	48	50	46	55	53	56	56	67	63
일반기계	175	186	195	222	265	258	300	320	309
전기기계	161	168	170	171	184	193	181	222	217
정밀기계	57	72	73	79	85	86	89	106	124
종이/목재	31	20	29	31	30	29	33	38	37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한국의 대칠레 수입에서 수입품목수는 1차산품, 가공1차산품, 고무·화학, 종이·목재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남.

- 1차산품과 가공1차산품의 경우 2001~09년 동안 수입품목수는 각각 119개와 125개에서 356개와 445개 품목으로 늘어남.
- 고무·화학 수입품목수도 같은 기간 동안 49개에서 161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종이·목재 품목 수는 145개에서 245개로 늘어남.
- 또한 일반기계와 전기기계 품목수의 증가도 눈에 띄는 특징으로 나타남.

표 4. 연도별·산업별 한국의 대칠레 수입 품목수(2001~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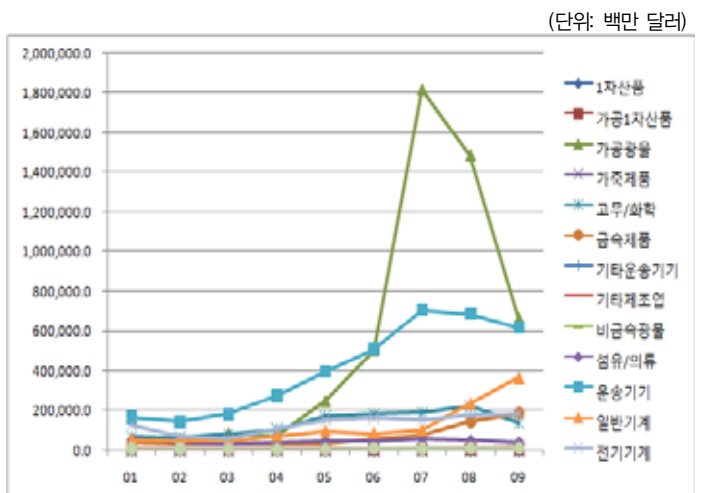
산업	(단위: 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차산품	119	152	136	227	285	314	317	326	356
가공1차산품	125	127	133	174	248	265	240	288	445
가공광물	96	100	114	137	133	149	157	150	150
가죽제품	1	4	2	6	2	2	3	5	4
고무/화학	49	47	74	76	83	104	128	130	161
금속제품	66	71	62	86	79	100	100	125	112
기타운송기			1						
기타제조업	3	4	10	5	7	13	10	13	13
비금속광물	2	1	6	14	13	10	11	18	19
섬유/의류	21	26	12	3	16	31	41	29	36
운송기	5	1	4	3	1	4	5	7	5
일반기계	16	8	18	13	24	19	15	30	43
전기기계	22	27	25	34	38	32	32	32	55
정밀기계	9	9	8	5	11	16	9	11	24
종이/목재	145	152	128	157	160	138	183	227	245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교역품목수의 증가는 한·칠레 상품교역 증가, 특히 한국의 대칠레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됨.

- 한국의 대칠레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가공광물 수출의 경우 2001~09년 사이에 수출품목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1년 약 69만 달러 수출에서 2009년에 296만 달러로 4배 이상 수출이 증가한 가공1차산품의 수출품목수는 같은 기간 약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임.
- 또한 수출품목수가 크게 증가한 일반기계나 전기기계, 금속제품 등의 수출 증가도 같은 기간 전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함.
- 반면에 수출품목수가 감소한 섬유·의류 품목이나 가죽제품, 품목수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기타제조업이나 종이·목재 품목의 대칠레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 비금속광물과 같이 품목별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칠레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수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됨.¹⁾

그림 1. 산업별 수출액(2001~09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이러한 결과는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칠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적극적인 수출을 추진하게 되고, 이전에 거래되지 않던 새로운 품목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증가하는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줌.

1) 2001~09년 21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증가함. (가공1차산품 10개, 일반기계 9개, 전기기계 10개, 기타 2개)

3.

- 교역품목 증가에 따른 수출·수입의 관계와 함께 3장에서는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기업들이 특성에 따라 다변화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함²⁾

가. 한·칠레 FTA가 기존수출과 신규 수출에 미친 영향

- 연도별 전체 수출기업수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 발효 이전에는 비교적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이 발효 이후로 급격한 증가추세로 돌아섬.
 - 2002~03년 사이에는 감소하던 수출기업수는 2004년부터 증가로 돌아섰으며 2007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한·칠레 FTA 발효 전(2002~04년)에 수출기업수는 평균 3.6% 감소하였으나, 발효 후 2009년까지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임.

표 5. 연도별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기업수(2001년~09년)

(단위: 개)	
연도	수출기업수
2001	1,311
2002	1,261
2003	1,099
2004	1,161
2005	1,238
2006	1,241
2007	1,219
2008	1,356
2009	1,471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2001~09년 동안 칠레로 수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신규 진출기업과 기존 수출기업으로 분류함.
 -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기준으로 2001~03년까지 칠레에 대한 수출 실적이 없다가 2004년 혹은 이후에 수출을 시작한 기업을 신규 수출기업으로 정의하고, 2001~03년 기간에 수출 실적이 있었던 기업은 기존 수출기업으로 정의함.

- 2001~09년 동안 칠레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총 5,489개 기업 중, 위의 정의에 따라 기존 수출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 3 (5,489) 2001~09

3,064개(55.8%)이며 신규 수출기업은 2,425개(44.2%)임.

- 한·칠레 FTA 체결 이후인 2004~09년 기간의 한국의 대칠레 총수출액에서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은 총수출액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 비중은 35.3%에 달함.

- 이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 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신규 수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6. 기존 수출기업과 신규 수출기업 간 비교

	(단위: 개, 백만 달러)		
	기존 수출기업	신규 수출기업	합계
총기업수	3,064 (55.8%)	2,425 (44.2%)	5,489
총수출액	7,089.9	3,859.8	10,949.7

주: () 안은 총기업수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기존 수출기업수와 신규 수출기업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진출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4년 기존 수출기업수는 총 762개에서 2009년에는 414개로 감소한 반면, 신규 수출기업은 2004년 399개에서 2009년에 1,057개로 증가함.

- 기존 수출업체와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 실적은 기존 업체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과 2009년에 하락함.

-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2009년 수출이 전년대비 43.7% 하락한 반면에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11.8% 하락하는 데 그침.

표 7. 연도별 우리나라 대칠레 진출기업수 및 수출 실적: 기존 수출 및 신규 수출기업(2004~09년)

연도	(단위: 개, 백만 달러)			
	기존 수출기업수		신규 수출기업수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2004	762	452.5	399	20.2
2005	646	812.4	592	47.4
2006	556	886.7	685	356.2
2007	487	1,656.4	732	1,066.2
2008	464	1,541.5	892	1,259.2
2009	414	867.2	1057	1,110.6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한·칠레 FTA는 국내 수출기업의 내연적 성장보다 외연적 성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규 수출기업의 수나 수출액에서 신규 진출기업의 약진이 한·칠레 FTA 이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남.

- 이는 무역자유화 정책이 수출시장에서 신규 수출업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한다는 미국 FRB 보고서³⁾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여겨짐.

나. 한·칠레 FTA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에 미친 영향⁴⁾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임.

- 2004년 이후 신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 총 2,425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330개로 전체 신규 진출기업의 96%를 차지함.

■ 총수출액에서 2004년 이후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중,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83%로 기존 수출기업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인 49%를 크게 상회함.

표 8. 기존 및 신규 수출기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 및 수출 실적 기업수 기준

	기존 수출기업		신규 수출기업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중소기업	2,890 (94%)	3,480.3 (49%)	2,330 (96%)	3,193.6 (83%)
대기업	174 (6%)	3,609.6 (51%)	95 (4%)	666.2 (17%)
총합계	3,064	7,089.9	2,425	3,859.8

주: () 안은 기존 또는 신규수출기업 총합계에서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또한 2001~09년 사이 연도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수출업체수에서는 대기업의 대칠레 시장 진출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던 반면, 중소기업 경우 200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섬.

3) Research Department Staff Report 324.

4) / 가
KISVALUE . KISVALUE

- 중소기업의 경우, 한·칠레 FTA 발효 3년 후인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수출액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내내 비교적 일정한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2004~07년 사이 연평균 122%로 대칠레 수출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7년은 전년대비 191%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던 2008~09년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대칠레 수출은 급격히 감소함.

○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이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표 9. 연도별 우리나라 대칠레 진출 기업수 및 수출액: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2001~09년)

연도	(단위: 개, 백만 달러)			
	전체 대기업수	대기업 총수출액	전체 중소기업수	중소기업 총수출액
2001	107	124.6	1,204	163.4
2002	107	68.9	1,154	160.0
2003	92	146.2	1,007	210.1
2004	106	272.1	1,055	200.6
2005	90	431.8	1,148	428.0
2006	101	544.6	1,140	698.2
2007	100	693.1	1,119	2,029.6
2008	115	968.0	1,241	1,832.6
2009	122	1,026.4	1,349	951.4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저자 작성.

■ 그러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칠레 수출시장 신규 진출에,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이후 국내기업의 대칠레 수출에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수출 증가가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칠레 FTA가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진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짐.

4.

■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관세인하 및 철폐로 인한 단순한 교역량의 증가, 즉, 수출의 내연적 성장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의 폭발적 증가에는 다른 중요한 요인인 증진효과가 존재하며, 이를 통한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음.

-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는 우리나라 대칠레 교역품목수 증가, 신규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출 및 수출액 증대로 설명 가능함.

■ 한·칠레 FTA에 따른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의 외연적 성장 증대는 수출탄력성 측면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먼저, 수출의 내연적 성장은 경기침체와 같은 무역의 단기적 순환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함⁵⁾.

- 최근 경기침체 및 회복에 따라 나타난 세계교역량의 가파른 침체와 회복의 이유는 내연적 성장이 이러한 변동을 주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기업의 대칠레 수출 경우 또한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해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이 신규 수출기업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음.

- 반면 장기적 수출변동에 대해서는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수출의 성장구조에서 외연적 성장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 무역의 장기적 성장의 원천이 더 견고해 지는 것임.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외연적 성장 증가는 경기침체와 같은 외부 충격에서 대해 덜 영향을 받는 견고한 수출시장구조와 수출성장 역동성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옴.

■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신규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외연적 성장, 내연적 성장의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칠레 수출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칠레 수출품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여겨짐.

■ 한·칠레 FTA를 비롯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총 5개 FTA가 발효되었고, 2개의 FTA가 비준 준비 중이며, 많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협상 개시가 예상되고 있음.

- FTA 추진에 앞서 기체결 FTA에 대한 정확하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내용은 주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통계 결과에 대해 계량분석을 통해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함.

○ FTA 체결에 따른 품목수와 관세율, 그리고 수출액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FTA가 증진효과나 내연적, 외연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KIEP**

5) Bernard, Jensen and Schott(2009), "The Margins of U.S. Trade," NBER Working Paper 14662